

생명에 온기를 더하다



여는 글

2020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신 여덟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만남 대신 전화·이메일로 인터뷰한 후 에세이 방식으로 수록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로 생명에 사랑을 더해주신 여덟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6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김은호 위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시민사회NGO학과 교수

간혹 '나눔'을 가진 사람이 주는 것을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주는 사람도 받는 것이 있는 게 바로 나눔입니다.



010

교보생명
교보다솜이지원센터
차경식 센터장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발전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교보생명이 꿈꾸는 그림입니다.



014

'플레이 라이프'
라이프 플레이어
아티스트 하림
'PLAY LIFE'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나의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듣고, 또 뮤직비디오 영상 속 일몰의 빛을 보는 동안에는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18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소속
류희일 경위

우리나라에 항공구조사라는 임무가 2014년에 처음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지원한 것도 국민들의 생명을 꼭 살려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022

송실대학교 대학원
보험수리 전공 석사과정
후이당광
DANG, QUANG HUY

생명보험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지만, 생명보험이 우리 사회의 안정과 개인들의 행복을 최대한 지키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026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
이윤호 본부장

자살예방이 사후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으로서의 자살예방 체계가 잘 갖춰진다면 사회적 무관심 속에 궁지에 몰리는 개인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030

한국생명의전화
김요한 팀장

아이들이 흑여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더라도 굳건히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한국생명의전화가 펼치는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깨를 토닥이는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03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 나눔사업팀
주연화 과장

같은 돈이나 물건도 쓰임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를 갖습니다. 사랑과 사랑, 사랑과 자원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는 데 돕고 싶습니다.

기업은 이미 그 자체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TORY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ESSAY 생명에 김운호 위원

BOOK 온기를

더하다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교수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오랫동안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해온 나 또한 수없이
진지하게 고민했던 부분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 학생들에게 내 생각을 이렇게 밝히곤 한다.
“기업은 본질적인 존재 의미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그 자체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가계의 주요 소득원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편익하게 하며, 경쟁력의 주체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간혹 기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들로 인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순수성에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는 법의 엄중한 집행을 통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이 선량한 기업시민(Good corporation citizenship)으로서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헌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당연한 책임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법적,



그리고 윤리적 책임을 말한다. 합리적인 가격의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경제적 책임, 국가가 정한 법을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할 법적 책임, 상도덕을 지킬 윤리적 책임. 사회공헌활동은 이 3가지 책임과는 의미가 다르다.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선적 혹은 재량적 책임으로 불린다.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활동이기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혹여 기업의 브랜드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성 활동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선한 의미를 지닌 활동이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생명을 살리고 복지를 향상시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존재와 활동상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사실 나는 생명보험에 대해 따로 공부하거나 관심 있게 보는 편은 아니었다. 우연한 계기로 보험업의 공익성과 보편성(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위기와 위험을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공감하면서 2016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위원회는 1년에 세 번 열리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여러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3개의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위원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평가하고, 결정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나 계획 중인 사업 자체의 의미와 필요성보다는 '생명존중'이라는 위원회 설립 목적과 사명에 적합한지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다. 2020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한 일상의 의미, 안전한 사회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로서는 그동안 대면 중심으로 진행하던 공익사업들이

2016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김운호 위원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시민사회·NGO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 NGO와 기업의 역할을 진단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업시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지속되고,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익사업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되며 강화될 수 있는 시스템의 체계화를 깊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고민 속에 위원회의 공익사업이 한 단계 더 진화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것을 믿는다.

간혹 '나눔'을 가진 사람이 주는 것을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주는 사람도 받는 것이 있는 게 바로 나눔이다. 베푸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감, 나눔을 통한 변화를 보며 느끼게 되는 보람이 어찌면 더 클지도 모르겠다. 우리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나눔을 바탕으로 하는 위원회의 공익사업에 부디 많은 기업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언젠가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선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얼마 전, 교보생명 '교보다솜이 드림메이커스' 사업 담당자로부터 한 학생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꿈을 접고 있던 학생이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꿈을 다시 꾸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영상촬영에 관심이 많던 이 학생은 우연한 기회에 드론을 체험한 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우기에는 금액적 부담이 상당했고, 힘들게 생업을 이어나가시는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배움에 대한 열망을 마음속 깊이 접어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던 어머니가 교보다솜이 드림메이커스의 드론조종 교육과정 소식을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다. 다행히 그 학생은 참가자로 선발되어 성실히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 이제는 '드론 영상촬영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누군가는 쉽게 배우고 꿈꿀 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꿈꾸는 것조차 미안한 일이 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청소년들이 꿈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배움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 중인 것이 바로 '교보다솜이 드림메이커스'다. 현시대의 청소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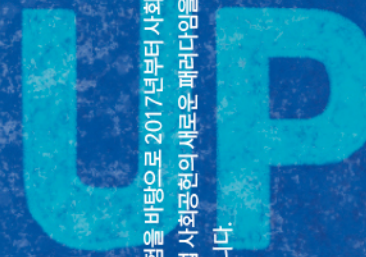


배우고 싶어 하는 드론 조종, 소프트웨어 자격 취득, 3D 프린터 운용, 웹툰 디자인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4차 산업에 필요한 ICT 인재로 양성한다.

또 다른 우리의 미래인재 학생은 현재 사진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이 학생은 아동보호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었다. 어떻게 홀로서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던 학생에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다. 사진과 디자인에 흥미가 있다는 말에 우리 회사에서 육성 중인 스타트업 소이프스튜디오에서 1년간 사진과 디자인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소이프스튜디오는 '세상에 임팩트를 더하자! UP' 사업을 통해 발굴·육성한 디자인회사로 아동보호시설의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이 끝나면 고용해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이다. 이곳에서 사진과 디자인을 배우고, 영어교육까지 마친 학생은 자신이 작업한 사진과 일러스트가 티셔츠, 가방, 양말 등으로 탄생되는 과정을 보면서 전문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지금은 대학에 진학해 열정의 크기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걸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우리 회사의 사업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교보생명에서 ICT 인재를 키우고,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다 보니 생명보험회사에서 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래세대가 원하는, 미래세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 장기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다.

과거 기업의 사회공헌은 임직원들이 노력봉사를 하거나 물품, 성금 등을 지원하는 직접 지원, 물적 지원 중심의 활동들이었다. 청소년들을 만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보니, 아이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이었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 끝에 지금과 같은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스타트업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는 기업이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발굴·육성된 스타트업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들이 지속적인 자기성장을 하고, 사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현재 교보생명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각장애 아동의 인공와우 수술을 지원하는 '와우 교보다숨이 소리빛' 사업, 체(體)·덕(德)·지(智)를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는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발전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교보생명이 꿈꾸는 그림이다.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STORY	3	플레이 라이프
ESSAY	생명에	아티스트 하림
BOOK	온기를	
	더하다	

PLAY LIFE 테마송 'Play Life' 노래 하림.

PLAY LIFE MUSIC Pt.1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작사·작곡·노래 하림.

연말에 2개의 음원을 발표했다. 하나는 11월에 발표한 플레이 라이프 테마송 'Play Life'이고, 다른 하나는 12월에 직접 작사·작곡한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다. 음원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처음에 플레이 라이프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사업 담당자가 찾아와, 음악적 조언을 구하면서다. 위로의 음악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한다니,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온라인상에서 그러한 콘텐츠를 즐길 곳이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노래에 '위로'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제3자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음악 작업을 하면서 나에게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 사업을 담당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사실 위로라는 것은 서로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 해서 상대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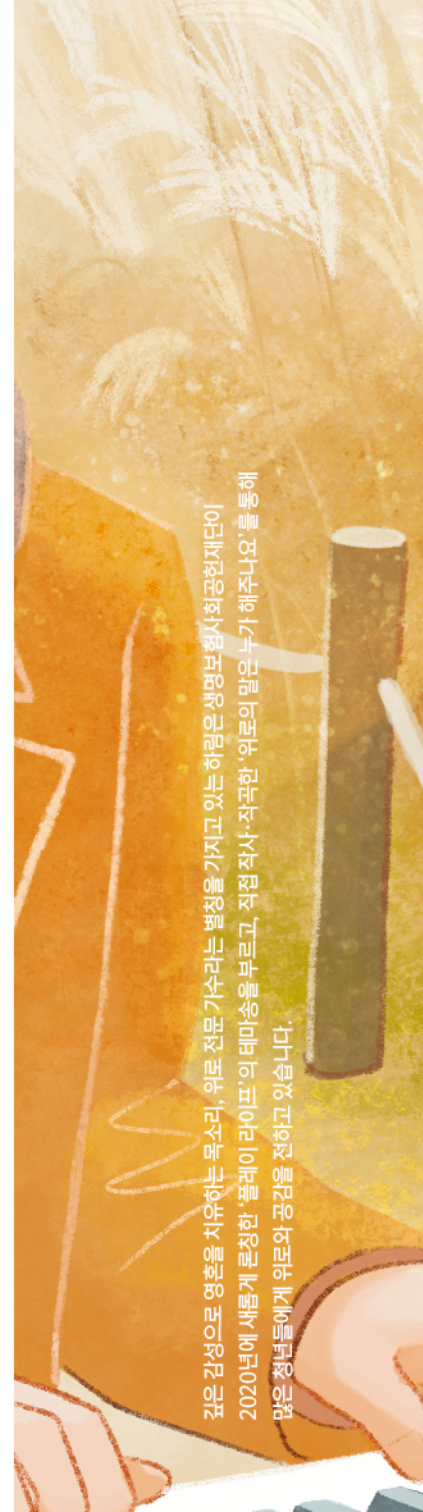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닐뿐더러,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야만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음악은 감정의 전이가 비교적 잘 되는 매개체이긴 하지만, 나의 이야기처럼 공감되지 않으면 위로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가 위로하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작업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만든 '위로'라는 노래를 떠올렸다. 2004년에 발표한 '위로'는 제3자가 듣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의 노래다. 16년이 흐른 2020년에는 어떤 위로를 전해야 할까. 매우 조심스러웠다. 권유하는 말투보다는 노래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나라고 생각하고, 화자를 내면의 소리로 설정했다. '왜 나만 외로워. 왜 나만 힘들어. 어떤 이유인지 난 모르겠어.'로 시작되는 첫 소절에서도 알 수 있듯 화자를 나 자신으로 설정하고 노랫말을 썼다.

노래의 영감은 나 스스로에게 얻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유롭게 외출하지도 못하고,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나의 힘든 감정을 표현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집에 갇혀있다 보니 나 또한 심적으로 힘들고 예민해져 있었다. 그러한 나의 솔직한 감정을 노래에 담았다. 이 노래가 특정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힘든지 알아채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면 이 노래를 듣고 공감을 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있다.

오랫동안 음악을 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노래가 갖는 치유의 힘을 믿는다. 노래는 듣는 것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지만, 소리 내서 불렀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다가도 노래를 흥얼흥얼 하다 보면 어느새 외로움이 사라진다. 고립감이 조금씩 희미해진다. 노래가 갖는 그러한 치유의 힘이 발산될 수 있도록 이번 노래는 누구나 흥얼거리며 부르기 쉽게 만들려고 했다.



깊은 감성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목소리, 위로 전문 가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하림은 생정보 형사회공헌재단이 2020년에 새롭게 론칭한 '플레이 라이프'의 테마송을 부르고, 직접적사·직곡한 '위로의 밑은 누가 해주나요.'를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도 높지 않고, 호흡이 달리지 않게. 나의 의도가 잘 전달된 것인지 최근에 이 노래를 들은 어떤 교사가 SNS로 연락을 취해왔다. 학생들이랑 같이 부르고 싶은데, 반주 악보를 좀 보내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여러 명이 함께 부르기 괜찮은 노래로 만들었다는 데서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았다. 부디 학생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따뜻한 감정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뮤직비디오를 찍던 날, 갈대밭을 비추던 그날의 오렌지빛 일몰이 생각한다. 의도한 것은 아니고 촬영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일몰의 따뜻한 오렌지빛이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담겼다. 노래를 듣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외에 영상을 보는 것으로도 어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듣고, 또 뮤직비디오 영상 속 일몰의 빛을 보는 동안에는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망망대해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STORY 4 제주지방해양경찰청
ESSAY 생명에 류희일 경위
BOOK 온기를
더하다

그날을 떠올려보면 아직도 마음이 안타깝다. 신고를 받고 헬기를 타고 출동한 시간은 새벽 6시. 2020년 4월 9일이었다. 서귀포항 남동쪽 55km 해상에서 선박에 화재가 났다며 상황실에서 출동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화재선박에 도착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수색을 하다 보니 저 멀리서 바닷물에 빠져 있는 선원들이 보였다. 광해호 선원들이었다.

선원들은 조업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피곤함에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서 깨어 보니 기관실에 불이 번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 시각이 3시 30분쯤. 불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져 있었는데, 통신마저 두절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선원들은 지나가는 어선에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며 바다에 뛰어 들었다고 한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바다의 특성상 휴대전화는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 화재로 발전기가 꺼지면 긴급 신고할 수 있는 무전기마저 통신이 두절된다. 불이 난 선박은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으로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 화재 진압에 실패한 선원들은 다급하게 그물에 부이(물 위의 일정한 위치에 설치된 부표)를 묶어 바다에 던지고, 선박에서 뛰어내려 부이를 목숨줄처럼 붙잡고



있었다. 그날의 수온은 19도. 한 시간 정도만 바닷물 속에 있어도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온도다. 새벽의 짙은 어둠 속에서 선박은 발견되기 어려웠고, 한참이 지나서야 지나가던 어선이 화염에 뒤덮인 광해호를 발견해 신고했다.

광해호에 타고 있던 선원은 모두 6명이었다. 화재선박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바다에서 발견됐는데, 그중 4명은 의식이 괜찮았고, 1명은 가까스로 의식이 붙어있었으며, 1명은 의식을 잃고 약 1km 떨어진 곳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헬기에서 호이스트(항공구조사가 타고 오르내리는 도르래형 장치)를 타고 내려갔다. 구명뗏목(접이식 튜브)을 펼쳐 선원들을 하나둘 뗏목 위로 옮겼다. 바람이 많이 부는 탓에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새벽이었다. 그중 의식이 희미한 선원은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아 경비함정의 작은 보트에 옮겨 구조팀에 인계했다. 1km 떨어진 곳에 혼자 있었던 선원은 다른 구조사에게 구조됐다. 선원 6명 모두 구조에 성공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셨다.

해양경찰로 15년째 일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됐더라면, 우리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해양경찰은 신고를 받아도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장에 빠르게 출동하기 어렵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분인데, 신고를 받고 아무리 빠르게 출동해도 4분의 시간은 지나버린다.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12월이었다. 창진호라는 선박이 파도를 맞고 전복되어 13명의 선원이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원은 모두 14명이었는데, 13명은 구조에 성공했으나, 1명은 끝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13명의 선원 중 2명은 중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찾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구조할 때 의식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숨진 상태에서 구조할 때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소속 류희일 경위는 위험한 화재현장에서도 선원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헌신해 '2020년 생명존중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류희일 경위는 상금 1,000만원 전액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생명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한 번 더 전했습니다.

많다. 어쨌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데, 너무 늦게 발견된다.

우리나라에 항공구조사라는 임무가 2014년에 처음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지원한 것도 국민들의 생명을 꼭 살려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는데, 바다에서 이분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해양경찰들뿐이다. 항공구조사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무사히 구조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 보내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임무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생명존중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셨다. 살면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흔치 않을 텐데, 큰 상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마음뿐이다. 항공구조사는 절대 혼자 잘한다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헬기에 탄 조종사, 정비사, 응급구조사 등 6~7명의 대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다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가족처럼 끈끈한 우리 팀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더 열심히 훈련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해달라는 의미일 것이다. 바다의 생명을 지키는 항공구조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AASP는 계리사가 되기 위한

아시아권 최고의 교육과정

STORY	5	송실대학교 대학원
ESSAY	생명에	후이당광
BOOK	온기를	
	더하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간다. 2019년 8월에 아시아 보험계리전문가 양성과정(Asian Actuarial Scholarship Program, 이하 AASP)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에 왔다. AASP는 베트남의 금융학 전공 학생들에게도 꽤 유명하다. 나 또한 학부 2학년일 때 선배를 통해서 한국 송실대학교의 AASP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다. AASP는 계리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시아권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유명하다. 학교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가 AASP 장학생 선발한다는 공지를 보고, 망설일 것도 없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꼭 선발되기를 희망했는데,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정말 기뻐다.

처음에는 한국 학교생활과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너무나 만족스럽게 공부하고 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직도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첫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때 교수님께서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비슷한 또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몽클하게 다가왔다. 교수님은 그때 그 말씀대로 매 학기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도움을 주고 계신다. 또 장학생들을 여러모로 돕는 한국인 전담조교는 공부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준다.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어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았다.

힘든 게 있다면 단연 국제자격시험 준비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준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현재까지 AASP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과목 10개 시험 중 7개 과목을 마쳤다. 이번 학기에 나머지 3개 과목을 무사히 마쳐야 하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나도 선배들처럼 성공적으로 졸업해 보험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실제로 베트남 출신 AASP 졸업생 선배들을 보면 수료한 후에 다들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 대부분 생명보험사에서 일하는데, 일부는 정부의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몇몇 선배들은 리스크관리 분야 또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졸업생들 중에서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을 꼽으라면 베트남 ManuLife사의 계리 부문 최고책임자로 있는 Mrs. Mung이다. 이곳에서 AASP 과정을 마친 후 3~4년만에 FSA 자격증(미국의 보험계리사협회에서 인증하는 정계리사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최고로 인정받는다)을 취득해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중책을 맡아 유능하게 일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선배다. 나 역시 선배들처럼 계리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대학(베트남 국립경제대학교)에서 재무수학(Financial Mathematics)을 전공했는데, 계리사는 학부 전공과도 관련성이 밀접하고, 내 적성에도 잘 맞는 직업 같아 계리사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계리사는 보험과 리스크관리 분야 등에서 최고의 전문직으로 평가받는 직업인데, 베트남에서도 전망의 대상이다.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잘 밟고 계리사가 되어 인정받고 싶다.



베트남에서 온 후이담퀸(Dang, Quang Huynh) 학생은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이 지원하는 '아시아 보험계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AASP)'을 통해 송실대학교 대학원에서 보험수리전공석사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리사가 되어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길 희망하며 학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계리사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AASP를 지원하는 한국의 생명보험사가 정말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다. 베트남의 보험회사에 기대하기 어려운 좋은 일들을 한국의 보험회사들이 앞장서 사회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수혜를 받고 있는 AASP도 국제적으로 크게 공헌하는 공익사업이라 생각한다. 아직 어려(24살) 내가 생명보험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지만, 생명보험이 우리 사회의 안정과 개인들의 행복을 최대한 지키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다. 한국의 생명보험사들이 AASP를 지원해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베트남에서는 전혀 접할 수 없었던 여러 과목들을 배우고,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나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공부하면서 더더욱 실감하고 있다. 8월이면 졸업이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나면 교수님도, 조교들도, 학교 교정도,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 아마 한국에서 공부한 이 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마지막 학기를 잘 마치고 논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생각으로 가득차 있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가 생명보험회사의 계리분야에서 일하며 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입니다

STORY 6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ESSAY 생명에 이윤호 본부장

BOOK 온기를

더하다

“택시 운전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한다고요?”

내가 있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서 전국의 택시 모범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그동안 안실련에서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원자력안전, 재난재해 예방 등 시민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는데, 그중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안실련에서는 자살예방 사업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범국민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택시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키퍼 교육이다. 게이트키퍼란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 해에 3,000여 명의 택시 모범운전자를 교육해 어느덧 6,000여 명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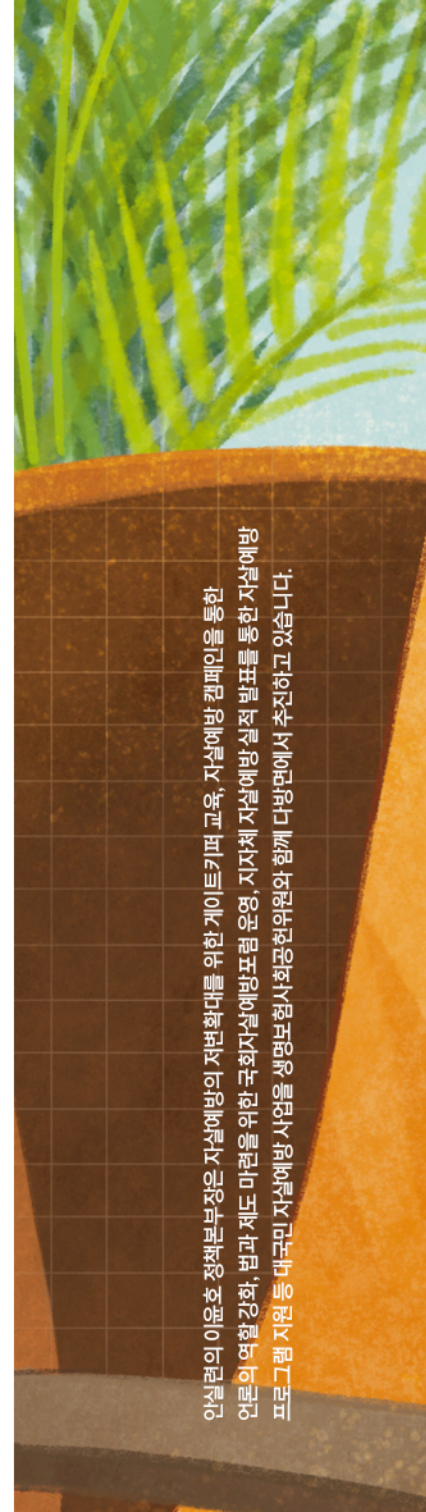
게이트키퍼 교육을 두어달쯤 진행했을 때였을 것이다. 한 모범운전자협회의 회장님께 연락이 왔다.



교육 덕분에 승객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다. 서울모범운전자 회원이 모 지역에서 젊은 여자 승객을 태웠는데, 처음에는 집으로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성산대교로 경로를 바꾸며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다고 한다. 여러 징후가 교육 받을 때 사례로 배웠던 그 모습이었다고 한다. 아차 싶었던 그 운전자는 승객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 경찰에 문자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그 승객은 경찰관과 차근차근 얘기를 나눈 끝에 마음을 바꾸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택시를 이용해 장소를 이동한다. 택시 운전자들이 승객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자살자 수 26.9명(2019년 기준)으로 OCED 가입국 중 여전히 1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충동적인 자살을 막으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안실련은 이런 고민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자 택시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시민들과 대면 상담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교육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해 추진할 생각이다.

안실련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자살예방 캠페인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살예방 교육뿐 아니라 언론 및 자자체의 관심을 키우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 일간지, 경제지, 그리고 라디오 매체와 함께 캠페인을 벌여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모두의 동참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나서서 자살예방 예산을 확대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국회자살예방포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해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살예방대상’을 운영해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약 70여 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지자체장이



안실련의 이윤호 정책본부장은 자살예방의 저변확대를 위한 게이트키퍼 교육, 자살예방 캠페인을 통한 언론의 역할강화,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자살예방포럼 운영, 지자체 자살예방 실적 발표를 통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 대국민 자살예방 사업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의 함께 다방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019년부터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실적을 평가해 발표하고, 하위권 지자체에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자살예방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본업 외에도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자살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다”라는 것이다. 때로는 이 말이 나에게 채찍이 되기도 한다. 사실 나 또한 처음에 자살예방 활동을 시작할 때는 지금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래왔듯 너무도 심각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좀 낮춰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극단적 선택까지 이뤄지는 것은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매우 많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개인을 궁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살예방도 안전사고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예방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길을 건널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운전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후 지원이 아닌, 생명존중의 이념을 성실히 수행하는 적극적인 지원으로서의 자살예방 체계가 잘 갖춰진다면 사회적 무관심 속에 궁지에 몰리는 개인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굳건히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STORY	7	한국생명의전화
ESSAY	생명에	김요한 팀장
BOOK	온기를	
	더하다	

한강다리 곳곳에는 전화가 있다. 이 전화에는 버튼이 오직 2개뿐이다. 하나는 지나가던 시민이 투신자살을 목격했을 때 구조를 요청하는 119 신고 버튼이고, 다른 하나는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도록 해 마음을 돌리게 하는 생명의전화 버튼이다.

내가 SOS생명의전화 운영을 담당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남자가 있었다. 일요일 저녁, 마포대교에 설치해둔 SOS생명의전화로 걸려온 전화였다. 40대 남성이라고 밝힌 그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며 비관했다. 그는 날이 어두워지면 투신할 거라고 했다. 내답자의 목소리로부터 느껴지는 절망적인 분위기는 119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나는 그남자에게 지금 바로 한국생명의전화 상담실로 올 수 있는지 물었고,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며 내방상담을 권유했다. 오랜 설득 끝에 약속을 하고, 나 역시 급히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로 가는 동안 그분과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내 신변이 위험해지진 않을지, 괜한 일을 한 건 아닌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 도착해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나자,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통화했던 그 내담자였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건강상, 가정상황상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참이나 비관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음날 오전에 한 번 더 상담을 하자며 긴급하게 노숙인 쉼터에 연계해 하룻밤 묵게 해주었다. 약속한 오전 10시에 맞춰 그는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찾아왔다. 나보다는 경험이 많은 우리 기관의 하상훈 원장님께서 대면상담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그분 주소지의 지역복지관, 주민센터에 긴급지원을 요청해 사례회의를 하고, 지역사회복지관에 연계해 매달 일정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게 만약 그때 그분이 SOS생명의전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SOS생명의전화에 걸려온 상담 내용을 보면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자살은 한두 가지 원인만으로는 문제가 규명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오랜 시간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 발생되기에 해결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 서비스의 지원과 개입, 문제 해결 방안과 결과 등 사업을 수행할 때 업무의 경계를 구분 짓는 것도 어렵다. 그렇기에 상담원이나 사업 담당자의 소진을 예방하는 일도 무척 중요하다. 정답은 없지만 답을 찾아가며, 지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2011년부터 9년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SOS생명의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쓸모없는 일, 예산낭비 등 여러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 사업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마지막 장치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보람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을까 많은 고민에 휩싸인다. SOS생명의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위기상담, 자살자유가족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살예방



한국생명의전화에서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김정은은 중요한 임정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와 청소년 대상 생명존중 프로그램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생명사랑범국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6년 동안에는 전국 1,300여 개 학교에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청소년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나를 지키는 법, 내 주위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전국의 많은 청소년을 만나는 동안 나의 두 아이도 청소년기를 맞이했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이 나라를 살아가는 내 아이들은 안전한지 고민은 계속 깊어만 간다. 아이들이 혹여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더라도 굳건히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한국생명의전화가 펼치는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깨를 토닥이는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베트남의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수많은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화생명과 함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힘들어하는 베트남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병원이 부족하다 보니 현지에 아동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병원을 찾은 아이들의 사정을 살피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 바로 '아동학대'다.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없다. 베트남의 많은 아동은 그것이 학대인지도 모른 채 어른들로부터 고통받고 있었다. 어른들 역시 아동을 '힘 없고 약한 존재'로만 받아들이거나 '어른들의 소유물'로 여겨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죄책감 없이 가해오고 있었다. 아동은 자신이 가진 많은 권리를 정확히 알고 누려야 하고, 어른은 그것을 도울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동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동의 권리와 어른의 의무'를 알리기 위해 베트남 현지인의 눈높이에



맞는 '아동학대 인식 개선 캠페인'을 고민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번갈아 악화되는 바람에 준비했던 캠페인은 실행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여전히 많은 베트남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진 않을지 걱정됐다. 코로나19만 아니었어도 그중에 한두 명의 아이들은 학대로부터 해당됐을 텐데 말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해외사업뿐 아니라 국내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 '고아원, 보육원'이라고 부르던 '아동양육시설'은 현재도 전국에 200개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1만 명도 넘는 아동이 생활한다.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양육시설의 특성상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 나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 역시 아이들을 자주 대면하지 못했다. 사업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아이들의 발달상황을 직접 살피기 어려웠다. 영유아들은 발달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 시기를 놓쳐 발달이 더뎠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아동양육시설의 아이들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영유아는 보육사의 부족과 반복되는 양육자의 변경으로 '애착 형성과 발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아동발달 전문가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하는 '맘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맘스케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지 못했지만, 맘스케어 사업을 위해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할 때면 참 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인다.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곳의 아동이 겪는 어려움이 많이 다르다. 도심에 위치한 시설의 아동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같은 정서적 소외를 많이 경험한다. 반면 도농지역에 있는 시설의 아동은 절대적인 자원의 부족을 겪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나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연화 과정은 생명보형사회공헌위원회, 한화생명과 함께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성장발달을 돕는 '맘스케어' 사업을 비롯해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힘들어하는 베트남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방문했을 때, 밝게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 다행스러운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 더 크다. 무연고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의 모든 선택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뤄지고, 그런 타인의 선택으로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시설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어느 지역에서 자랄지 선택은 할 수 없어도 어떤 곳이든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은 수준의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옳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 되돌아본다.

같은 돈이나 물건도 쓰임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를 갖는다. 그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는 데 돕고 싶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은 누구에게나 좋은 세상일 것이라 믿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게 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누구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고귀한 모든 삶이 존중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